

2019

반딧불이 (빈집활용) 사업 결과자료집

“반딧불이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민과 예술인이 교류하는 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Contents

Chapter 1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5

1-1 여는 글 6

1-2 사업소개 7

1-3 반딧불이 지도 8

1-4 한눈에 보는 성과 10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12

Chapter 3

반딧불이 홍보관 56

Chapter 1

반딧불이
(빈집활용)
사업

1-1 여는 글

1-2 사업소개

1-3 반딧불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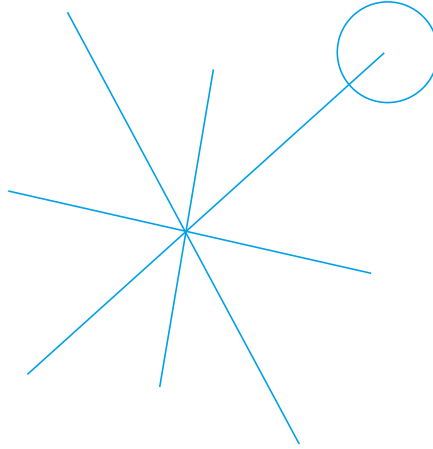
1-4 한눈에 보는 성과

Chapter 1

반딧불이
(빈집활용)
사업

1-1

여는
글



이 책은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가 ‘나’, ‘너’, ‘우리’의 ‘동네’에서 비어져 있던
‘공간(유희공간)’을 ‘지역민’, ‘예술인’과 함께 하나 되는
공간을 지향하는 것에 있다면 그 가치는 참여한 시민의
수만큼, 예술인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예술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새로운
도전 의지를 가지고 그 가능성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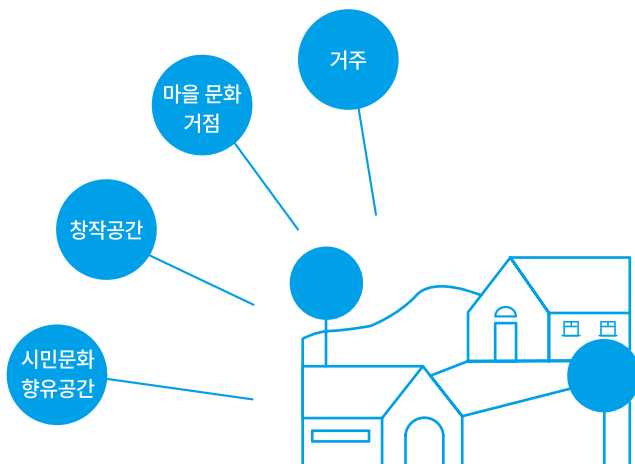
반딧불이 (빈집활용) 사업

사업
소개

1-2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은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빈집을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관 및 환경개선, 범죄 유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술인과 일반인이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Chapter 1

반딧불이 (빈집활용) 사업

1-3 반딧불이 지도

1
소재지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로 163 1층

용도/면적

주택(29㎡)

임주작가(분야)

이현주, 정익진, 원무현(문학)

2
소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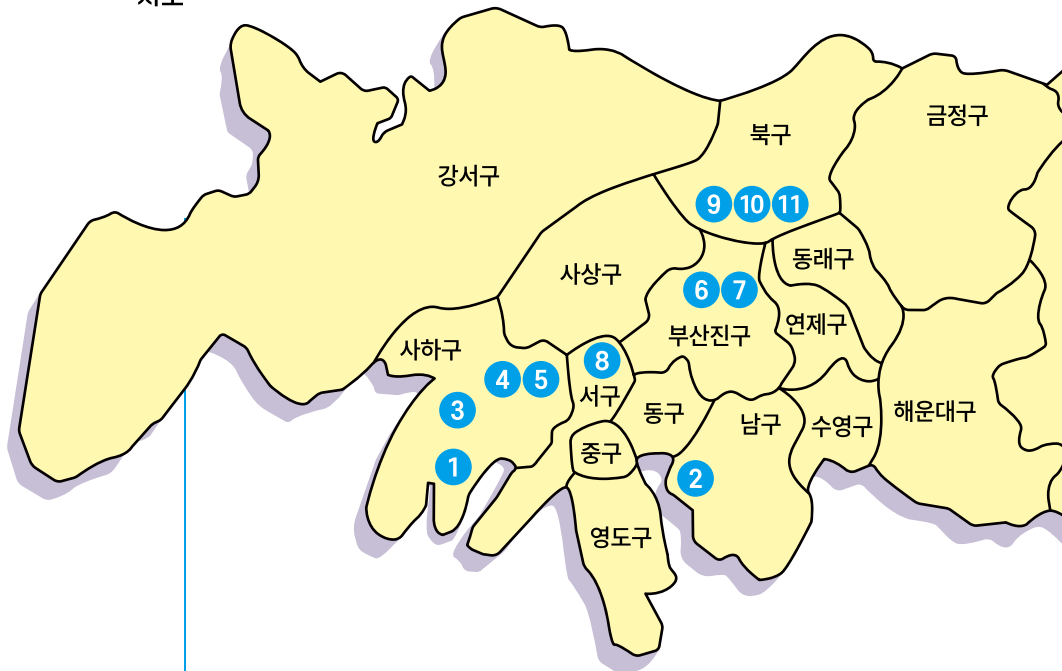
부산시 남구 홍곡로 35-4

용도/면적

주택(78㎡)

임주작가(분야)

쓸모있는 일 연구소(다원)



8
소재지

위치

부산시 서구 아미동 89-146번지

용도/면적

주택(30㎡)

임주작가(분야)

김수우, 고명자(문학)

9
소재지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41-182 1층

용도/면적

근린(56㎡)

임주작가(분야)

감동재 협동조합(목공)



3
아전

위치
부산시 사하구 옥천로 54번길 11

용도/면적
주택(185㎡)

입주작가(분야)
김자미, 김나월, 박지영(문학)

4
아전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내1로 163번길 34-2 1층

용도/면적
주택(35㎡)

입주작가(분야)
이은정, 김혜원, 장명주, 윤신혜(미술)

5
아전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내1로 163번길 34-2 2층

용도/면적
주택(35㎡)

입주작가(분야)
강경숙, 박정은, 조민정 (연극,미술)

6
아전

위치
부산시 진구 새싹로 148 왼쪽

용도/면적
근린(62㎡)

입주작가(분야)
청년작가위원회 무크지 짬(문학)

7
아전

위치
부산시 진구 새싹로 148 오른쪽

용도/면적
근린(62㎡)

입주작가(분야)
영화사 공감(영화)

10
아전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41-182 2층

용도/면적
근린(56㎡)

입주작가(분야)
프로젝트 팀 팬시(미술)

11
아전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동 1141-182 2층

용도/면적
근린(56㎡)

입주작가(분야)
만근스튜디오(음악)



1호점

이현주, 정익진, 원무현



상상 그 이상의 시,
지역민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강의 진행

2호점

쓸모있는 일 연구소



감만동 피난촌 스토리 텔링,
감만동 골목투어,
비밀기지 만들기 등

3호점

김자미, 김나월, 박지영



벽화(동시, 삽화)그리기,
동시콘서트,
동화 시화전 등 진행

4호점

이은정, 김혜원, 장명주, 윤신혜



지역민이 직접 사진, 영상을 찍고
219 공간에서 전시 진행

5호점

강경숙, 박정은, 조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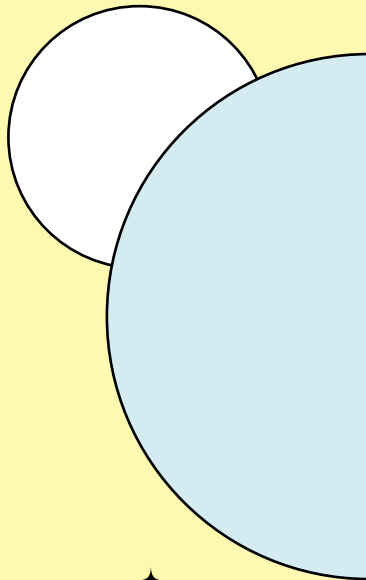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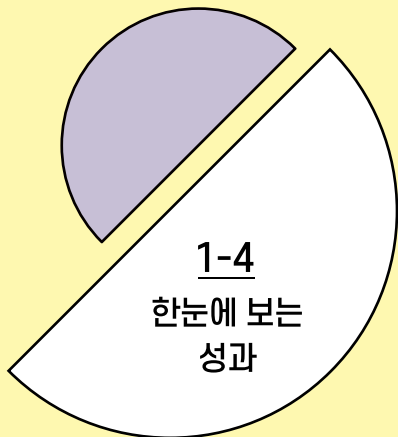
'공존'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 등 진행

6호점

청년작가위원회 무크지 짤



젊은 x 시선 세미나를 진행하여
작가들과 시민들의 만남 진행



1-4 한눈에 보는 성과

7호점

영화사 공감



반딧불이 영화관을 진행하고
영화기법을 활용한
팟캐스트 제작

8호점

김수우, 고명자



삶꿈시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대회

9호점

감동재 협동조합



목공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10호점

프로젝트 팀 팬시



도시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
드로잉 수업 및 전시

11호점

만근 스튜디오



지역민에 오페라를 친숙하게 하고자
갈라(짧은 오페라) 공연 진행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1호점

이현주
정익진
원무현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반딧불이 1호점에 입점한 시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각자 개개인의 시 창작 활동을 하다가 주 1회 정도는 주변의 시를 쓰는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작 활동을 공유하기도 한다.

문화예술분야

문학(시)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 사하구 소재 감천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시 창작 교실을 개강해 학년별 2회 수업을 실시하였다.
- (사)부산시인협회와 함께 백일장을 실시, 교유감상 등 50여 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 하반기에는 감천경로당 할머니 30여 분과 함께 삶을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을 하였다.



_ 감천초등학교 시 창작 수업

정익진 시인이 감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창작 수업을 하고 있다. 몇몇 아이들은 수업 후 따라 나와 시인을 해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순수한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때문에 오히려 시창작에 도움을 받았다.



직접 창작한 작품을 읽고 있다.

_ 감천초등학교 백일장

1 이날 소재는 갈매기, 태풍, 배로 원무현 시인이 감독을 하고 있다.



2 (사)부산시인협회와 함께 백일장을 실시, 50여 명에게 시상하였다. 위 두 학생은 산문부 장원 박준영(5-1)과 운문부 장원 양정혁(6-1)으로 교육감상이 수여되었다.





_ 반딧불이 어울마당

1 감천경로당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어울마당을 펼쳤다.
함께 시를 낭독하는 시간과 함께 추억을
더듬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2 초대손님 '김해경 시인'이 시를
낭독하고 있다.

_스토리텔링 수업

1 감천경로당 김용자 회장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 옛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회장님은 동아대 국문과를 졸업한
문학소녀였다. 이번 기회에 못다 푼
문학에의 열정을 다 쏟아내고자 열의를
표했다.



2 감천경로당 어르신과 삶을
스토리텔링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원무현
시인. 어르신들은 각자 살아온 힘겨운
생활을 풀어내며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특히 할머니 중에는 동아대 국문과를
나온 문학소녀도 있어 더욱 열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이현주

- * 감천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단은 대폭 감소된 학생 수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감해야 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순수했고, 바닷가에서 생활한 탓인지 생각의 여유가 남달랐다.
오랜만에 유년시절의 추억을 되새김하는 시간도 가졌다.
- * 어르신들과의 만남 또한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남은 여생을 동고동락하며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따듯했다. 그 속에서도 꿈을 갖고 있는 모습에 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과 함께하며 오히려 시 창작에 많은 소재를 건져 올리는 시간이었다.

정익진

- * 조용히 글 쓰고 싶은 욕심에 반딧불이 사업에 참여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에서 나만의 시간은 특별했다. 혼자 음악만 듣고 오는 날도 많았다. 더불어 창작활동을 공유하는 동아리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
- * 학생들과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시 창작에 또 다른 감각을 던져주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이었고 작품 발표도 여느 해보다 많이 할 수 있었다.

원무현

- * 감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 창작 교실을 연 것은 뜻밖이었다.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을 떠 가는 학생들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사물을 의인화하고 객관화하는 모습이 나를 기쁘게 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시간이었다.
- * 감천경로당 회장 김응자 어르신은 학창시절 못다 품 문학에의 열정을 이번 기회에 풀어놓고자 했다. 오랜 시간 홀로 보내며 살아온 시간 때문에 울기도 웃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돌려 생각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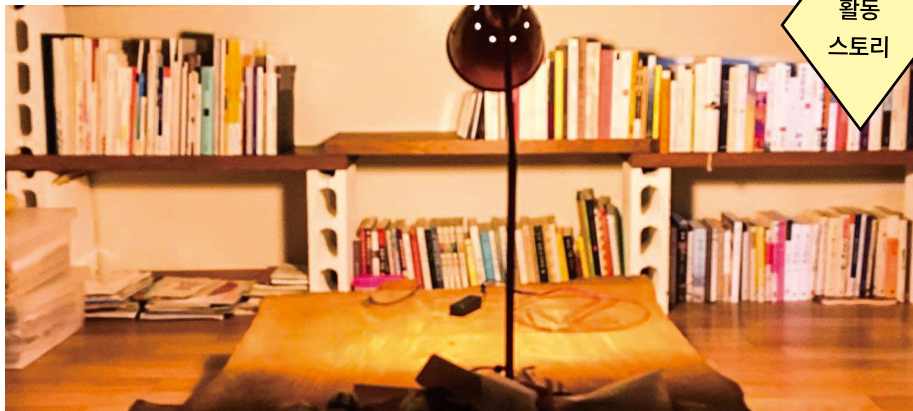
‘쓸모있는 일 연구소’는 문화 연구를 통해 세상에 쓸모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쓸모있는 일 연구소의 가치와 목적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커뮤니티아트, 다원예술, 시각, 문화기획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역사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기를 늦출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언젠간 사라질 감만동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곳 감만동은 마을 구비문화이
존재했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만드는
생활공동체 공간이었다.
현재의 감만동은, 빠르게 진행되는 재개발로 인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냈던 기존의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로의 감만동을
공유하고 기억하는 축제의 장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다.
우리는 감만동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감만동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빈집을 활용한 반딧불이 공간은 주택의 형태라서 각각의 방마다 테마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인이 공간은 이름하여 ‘생각의 방’입니다.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반딧불이 2호점의 옥상에서 진행됐던 ‘철답 기지 만들기’ 사진입니다. 감만동의 하늘과 구름 그리고 옥상의 풍경이 모두 어우러져 다들 감탄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주거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었던 이웃마을 ‘대연우암 공동체’의 위원장님을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 감만동의 재개발과 주거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가능했고,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셨던 분이 형형색색의 예술의 혼을 태우시는 모습.



감만동은 골목골목을 거닐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딧불이 2호점에도 꾸준히 찾아오는
고양이 중 한 마리랍니다. 초반에는
많이 경계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정겨워
졌는지 가까이 다가오네요.



도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만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도자기 만들기에 너무 집중하셔서
잠시 침묵이 있긴 했지만요.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신정옥

+ 반딧불이에 입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이곳에 녹아듦을 느꼈다.
누군가의 동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네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감만동' 만이 가진 풍경과 정취를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공간에 사람과 의미를 함께 새겨갈 수 있는 작업은 값진 경험이었다.
하나 바라다면, 감만동이 많은 이들에게 조금 더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김지현

+ 평소 커뮤니티 아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도자공예와 커뮤니티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싶었다.
5회차 정도를 진행해보니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이 꽤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게 초기 기획안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는 듯하다. 감만동에 머무르는 동안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미 나에게 고마운 동네이고, 공간이 된 듯하다.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2호점

쓸모있는 일
연구소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3호점

김자미
박지영
김나월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세 여자의
상큼 발랄, 각자도생과 협업으로 진정한
백수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읽고 쓰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이면서
동시에 변화지 않는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삶을 마주한다.

문화예술분야

문학과 연극,
이미지 메이킹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반딧불이 3호점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고자 한다.
미니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동시, 동화 작가들과의 강연을
통해 지역주민 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반딧불이
공간을 알리고 소외 계층인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세대 간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

- 3월 행사



공용화장실을 쓰지 않아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변을 보아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났다. 구청에 연락해 남성용 화장실 문을 달고 아이들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코끼리가 하트를 뿜어내고 꽃이
피어났다. 초록 문은 빗꽃이 만개했다. 누가 이렇게 예쁜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까. 골목 바닥에는
반딧불이가 길을 밝히고 차가운 벽에 작은 풀꽃들을 그려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길이 환하다.

- 5월 행사

봄가을, 마당콘서트를 해왔다. 올 봄엔
배익천, 안미란, 은영 동화작가 세 분을
모시고 그들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섭외가
어려워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지만 기꺼이
응해 주어 동화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등단 작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작품 속 이야기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떤 것이 작품이고 어떤 것이 사는
이야긴 줄 구분이 안갈 정도였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 봄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 7월 행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엄마의 맛. 동네 할머니들과 엄마의 손맛
자랑을 했다.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뭘 해야 되겠노. 옛날 같지 않아.”
하시더니 “우리 아들이 잘 먹는 거 해야겠다.”
“선생님 뭐가 잡수고 싶노.” 하시더니 잡채, 부침개,

오징어무침, 샐러드, 닭볶음탕, 가지피자. 솜씨를 펼쳐놓았다. 아무럼 어머니들 수십 년 자식들 알뜰살뜰
먹여 키우던 솜씨가 어련하실까.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한 수 배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_ 9월 행사

반딧불이 3호점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진전을 했다. 오고가는 사람들, 함께 한 분들 오며가며 거꾸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잠시 그곳으로 가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야, 저거 내 아이가.” “이걸 내가 그렸다고?” “그때 상품으로 받은 프라이팬은 우리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3호점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올해로 그만 둘래요 했더니 정이 듬뿍 들었는데 어릴 거려고 그러냐고 일 년 만 더 하라고 붙잡는다. 흔적을 더듬더듬 더듬어 가다보니 울컥. 정이 군데군데 도톰하게 쌓였다.



_ 11월 행사

광목을 뜨고 시침하고 다리고 시를 쓰고 그렸다. 업체 맡겨 뽑으면 될 걸 정성을 쏟았다. 동시공부를 시작하고 작가라는 이름표를 단지 10년이다. 함께 한 문우들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갈 수 있었다. 그 사이 책을 두 권이나 내고 상도 많이 받았다. 반딧불이 3호점에 와서 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 되어 책을 냈고, 올해는 사하모래톱 문학상도 받았다. 지난했지만 행복했던 세월의 흔적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미니갤러리에는 동시 발전에 앞장 선 아동문학가 박일의 작품 전시를 했고, 담벼락에 부산 동시인들의 대표 동시화를 걸고 마당에서는 시를 낭독을 했다.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김자미

*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는데 이젠 떠나야 될 일이 걱정이다. 철마다 바뀌는
 앞산풍경, 멀리 문화마을 쪽 하늘, 마당에서의 커피 한잔, 텃밭, 갯터리, 고양이,
 할머니들... 어찌지 보고 싶어서.

행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고, 할머니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
 안달하던 일이 번거롭기도 했지만 무척 즐거웠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텃밭고,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복된 시간들이었다.

박지영

* <부산리드교육원> 원장으로서 교육원을 이끌어 가기위해 무척 바빴다.

자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들과의 행사는 늘 즐거웠다.

반딧불이에 입주하고 함께 한 작가들 모두 일이 잘 풀렸다.

반딧불이 3호점은 기운이 좋은 곳인 것 같다.

김나월

* 지난해 동화책을 출간하고 올핸 이주홍문화관 상주작가로 가게 되었다. 터가

좋은 것 같다. 반딧불이에 매일 나올 수는 없었지만 틈나는 대로 오갔다.

마당에서의 토크콘서트나 행사는 그 어느 행사나 축제보다 멋지다고 생각한다.

참여 시민 소감

김정식 할머니 할매들이 뭐할 줄 안다고 시키노. 젊은 사람들과 노니 좋네.

하길자 할머니 동네 꽃도 그리고 시도 걸어놓고 작가 선생님이 와서 참 좋다

오제분 할머니 만날 밥도 주고 가르쳐 주고 감자라도 삶아 갈게요.

김현정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정말 반딧불이 같아요. 김연희 미니갯터리 멋져요.

박일 참 좋다. 우리 작가들이 앞장 서 이런 일을 해야지.

권애숙 갈 곳 수두룩한데 다 뿌리치고 여기로 왔어요. 동심이 살아 있는 곳이에요.

김이삭 나도 이런 작업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남은우 할머니들과 사는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예술이 별 건가요.

할머니들도 좋겠고 자미샘도 좋겠고.

김남식 우리 노인정에도 놀러오고 해요.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4호점

예술공간
이일구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예술공간 이일구’는 부산대학교
서양화와 재학생들이 버려진 집을 빌려
예술에 대해 논의하고 색다른 전시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문화예술분야

시각예술, 전시, 커뮤니티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 2019 상반기 기획 발표회
-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아카이빙 워크숍
- ‘나는 몬찍는다’ 사진전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24시간 각자의 삶 공유하기)



1



2



3



4



5



6

- 1 행사 시작 전 다과와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 2 주민분들께 오늘 행사 소식을 알리러 돌아 다녔다.
- 3 쑥스럽지만 행사를 시작하는 모습.
이일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준비한 피피티를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 4 2019년 이일구 반딧불이 계획서도 배부하여 함께
읽고 질의의 시간을 가졌다.
- 5 간단한 행사로 오는 들려주신 분들께 경품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렸다. 생활필수품들을 손수 골라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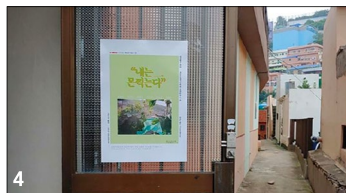


7

- 6 준비한 행사 일정을 마치고 <이일구 상반기 기획
발표회>를 들어주신 분들과 사진을 찍었다.
- 7 행사가 끝났지만 들려주신 주민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과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다.



1 지역 젊은 청년작가들과 함께하는 아카이빙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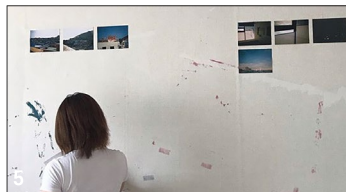
2 특별한 사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가님들과 할머니들의 첫만남.

3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대해 설명해주는 김화녀 할머니.

4 <나는 문짜는다> 사진전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

5 할머니들과 작가님들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하여 붙이는 모습.

6 전시에 참여하신 할머니들이 지인들을 불러다 같이 사진전을 구경했다.



장명주

* 처음 반딧불이를 시작하면서 주민 분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우리 단체를 받아들여 줄까하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감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주민 분들에게 반딧불이에 놀러오라고 홍보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함께 밥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와 옛날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했던 만남들이었습니다.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경계를 허물고자 시작했던 활동이었기에 이번 행사들을 도와주신 지역작가님들과 보낸 시간 역시 값졌습니다.

이은정

*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문화 관광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 지역작가들과 했던 모든 활동들이 예술 그 자체였다. 지나가다 열려있는 창문을 보시곤 딸이 보내준 굴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신 할머니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됐음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시는 아주머니까지. 꼭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지 않더라도 입주활동을 한 매일이 예술 활동이었고, 준비한 활동들이 무색할 만큼 그 이상의 과정과 결과들을 이끌어주신 이웃 주민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김규미

* 감천에서 만난 주민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었다. 할머니들과 행사를 통해 만나며 대화하고 알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특히, 할머니들 유년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본인의 젊을 때를 회상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지나가다가도 마주치면 알아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다. 세대의 격차를 뛰어넘고 함께 이뤄나가는 예술 활동들이었다.

김혜원

* 머릿속으로 마냥 떠오르던 계획들을 반딧불이 4호점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씩 그려나가며 함께했던 할머니들, 작가님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반딧불이 발자취



5호점

박정은
강경숙
조민정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예술이란 하늘의 달과 태양 그리고
산들바람까지 누구나 느끼고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린 그래서 각기 다른,
그러나 같이 하면 더 좋아서 뭉쳤다.

문화예술분야

연극, 미술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연극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 장기적으로는 전래동화, 환경, 나, 너 우리
(소중한 내 몸과 마음), 도덕적 마음과 상대방
배려 등을 극화하여 대본 리딩과 몸동작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술 재료들을 활용하여 소품을
제작하고 나의 꿈 (유토피아)을 찾고
그려본다.

_더불어 사는 삶 (1)



화분을 만들어 꽃모종을 옮겨 심었고, 옥상에는 각목을 이용해 화단을 만들고 담쟁이 넝쿨을 심었다.
고맙게도 마을 주민들이 화단 만들기를 직접 도와 주셔서 힘든 드릴작업과 흠을 수월하게 옮겼다.



집 앞 비어 있는 땅에 풀을 모두 뽑아서 보기 좋게 가꾸었다. 이때도 동네 어르신께서 땅속의 돌을 직접
캐내 주시며 집 앞의 황무지를 멋진 화단으로 변신시켜주셔서 감동이었다.
우리에게 서툰 호미질 사용이 어르신들은 너무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정말 신기했다.



_ 더불어 사는 삶 (2)

: 양말목 공예로 다양한 소품 제작

양말목이란 양말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로스 (Loss)부분을 생활용품이라고도 한다.

양말목 공예는 손을 사용해 뇌 활동을 촉진시켜 노인의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재료이다.



_ 나의 존재

: 집 앞에 붙일 수 있는 문패 직접 만들기 (1)

주민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시다. 처음 문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닌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셨다. 겨우 설득해 본인들의 이름으로 만들었다. 참으로 씁쓸했었는데 결국은 당신들 이름의 문패를 무척 좋아하셨다.





_ 나의 존재: 집 앞에 붙일 수 있는 문패 직접 만들기 (2)

문패 만들기 반응이 좋아서 노인정 옆의 큰 마을회관에서 직접 찾아 오셔서 2차 문패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박정은 외 2명

+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 공간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그림에까지 번지기도 하고 화장실에 물이 줄줄 새고
애써 키운 담쟁이 넝쿨이 다 죽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비와 바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셔서 준비된 재료들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1회차였던 프로그램들이 전부
2회차로 추가 진행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어르신들이 더 우리를
반겨주시고 먼저 찾아와 다음 프로그램을 기다려 주신다.
감사하고 감전은 여전히 사람 온기가 따뜻한 곳이다.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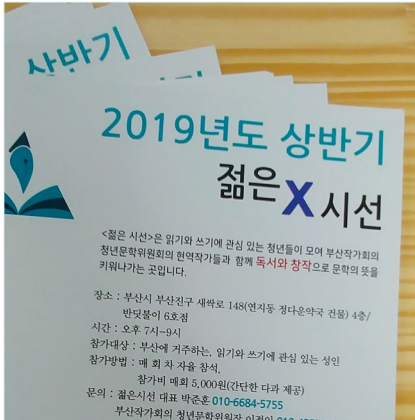
수도권 중심의 기회 불균형으로 문인마저도 서울로 가는 실정입니다.
‘청년문학위원회’는 부산, 경남의 젊은 문학인이 모여 지역의 젊은 작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청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
인문학 공부, 창작 합평회를 하고 <무크지 째>을 매년 발간해
전국의 젊은 작가와 교류합니다.

문화예술분야

문학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청년문학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지역의 젊은 작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선>과 함께하는 세미나.
<젊은 시선>은 문학창작과 이론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부산의
대학생 중심의 문청모임으로 청년문학위원회는 문학인 발굴·지원을
위해 이 <젊은 시선>과 함께 공부하며 교류했습니다.
매달 적어도 2회씩 모여서 세미나를 열고 문청의 창작물로 합평회를
진행했으며 문학기행답사, 지역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꾸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무크지 째》발간 사업. 부산의 청년 문학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무크지는 현재 6호 ‘역습’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의 젊은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작가회의의 타 지역 지회·지부의
청년 회원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작품을 싣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에는 <탈진>이라는 주제로 12월 21일 발간 예정입니다.



2019년의 시작은 상반기 세미나 계획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부산지역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지역의 문학을 알리기 위해 부산지역 젊은 작가 오선영, 배길남 등을 섭외했고 지역의 계간지인 <작가와 사회> 읽기, 청년문학위 무크지책이 2019년 발간한 <역습>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준비2>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시민향유프로그램에 넣지 못했지만 기획한 허택 작가와의 만남. 2018년 부산소설문학상을 수상한 허택 소설가를 모시고 도서 <대사증후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택 소설가가 직접 챙겨오신 빵과 커피 선물!



<준비1>

프로그램 참가 문의전화를 받은 날은 신나는 날입니다. 제작한 포스터 중에 남긴 것을 6호점에 붙이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제공해주신 수첩세트, 청년문학위에서 준비한 볼펜 등 작은 선물도 준비합니다.



<반딧불이 어울마당>

2018년 요산창작기금 수혜자인 오선영 소설가의 <모두의 내력>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선영 소설가는 재미있는 입담으로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계간지 <작가와 사회>를 읽고 필진을 몇 분 섭외해 계간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가, 시민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질문자이자 청자이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청년문학위원회 무크지랩에서 발간한 책 <역습>입니다. <역습> 작가와의 만남 때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 사인본을 선물했습니다.

참여 시민 소감

※ 계간 <작가와 사회>를 읽고 시민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 중 일부입니다.

이동원 개인적으로 김효연 시인님의 「더」라는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문장 한 줄마다 서로 다른 각기의 이야기들이 생각나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지듯 읽었어요. 박춘석 시인님의 「책」에서는 몽실몽실한 이미지의 두 자신이 대답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인상깊었어요. 배이유 작가님의 생동감있는 문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준훈 세 분의 작가님들을 만나 뵈 수 있어서 좋았고, 분위기가 너무 화목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느낌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엽 지방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고 시, 소설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도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 창작합평회 때 남긴 후기 중 일부입니다.

차동욱 작품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뜯어보고 잘한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면서 점점 제가 어떤 작품을 해야하는지 갈피가 잡히는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뵈 우은진, 이기록 선생님, 김대희 님 의견도 새롭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효빈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문학이라는 형태를 취해 한다는 것은 문학에 대한 기만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많은 고민과 도움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 올해에도 부산문화재단 반딧불이 사업의 6호점을 활용하였습니다.

개별 창작 작업장이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있었기에 창작 작업의 성과들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 창작의 작업에는 틀에 갇힌 형태의 결과물을 특정 시간에 맞추어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자유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공간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의해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합한 정책들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기문

* 반딧불이 사업을 2년째 활기차게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각각 흩어져있던 개인들의 글쓰기와 책 읽기에 대한 열정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학소녀, 문학청년인 대학생 혹은 부산의 일반 시민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평회와 작가 초청 모임을 일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작가 초청 모임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학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 시민과 예비 작가들이 자신들의 문학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문학을 향유하고 생산하는 주체들이 모여 말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술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자극시키고, 인식론적 지평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왔습니다. 이후에도 반딧불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부산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정임

* 반딧불이 6호점에 자리 잡고 2년째입니다. 6호점은 대개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사실상 문학과 예술인들은 한 달에 2번 이상 모여 책을 읽고 사회를 읽고 글을 썼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젊은 시선 모임에서 학생 대표를 했던 김남수 군이 지역신문 신춘문예 소설 본심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6호점에서의 일들만 보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문학이 죽고 있다고 연일 앓는 소리를 하지만 6호점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문학을 즐길 수 있고, 이 즐거움의 방식이 사회의 속도와 다른 ‘느림’에 있다는 것을 알릴 기회를 가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6호점에서 좋은 소식이 자주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7호점

영화사
공감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영화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웹드라마 등
다양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영화 탐험가가 만든 작은 회사.

문화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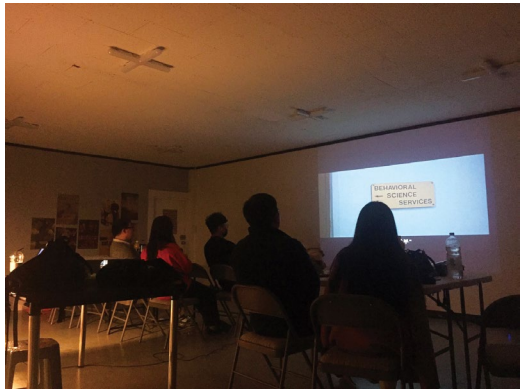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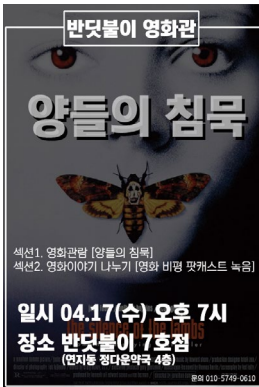
영화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반딧불이 7호점에서 격달로 시민향유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청년문화 커뮤니티
<취미작가>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_ 3월 20일 반딧불이 영화관 진행하기 전 페인트 칠 및 대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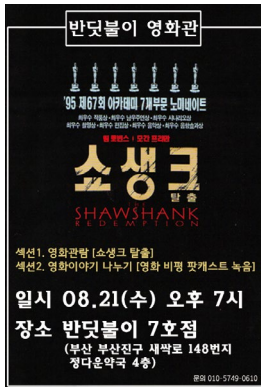
_ 4월 17일 반딧불이 영화관 <양들의 침묵> 상영회.



_ 6월 26일 반딧불이 영화관 <레옹> 상영회. 태풍으로 인해 참여자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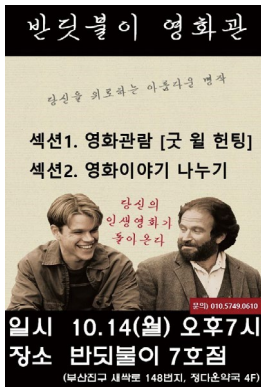
반딧불이 7호점에서 진행된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취미작가> 첫 모임.



8월 21일

반딧불이 영화관 <쇼생크 탈출>

상영회 포스터와 네이버 우리동네 홍보



10월 14일 반딧불이 영화관 <굿 윌 헌팅> 상영회.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영화사 공감

* 작년에는 중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반딧불이 7호점에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작업들을 늘려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영화관>과 <취미작가> 등 커뮤니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에 일주일의 한 번이상은 커뮤니티 관련해서 반딧불이 7호점에서 회의와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딧불이의 시민향유 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비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자신들의 사비가 들어가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간에 들어가 있는 물품과 다양한 시설들은 사비로 샀었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어가고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7호점

영화사
공감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반딧불이 8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우 시인과 고명자 시인은 부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확장해왔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문학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서 활동해 온 반딧불이 8호는 피란수도과 한국 근대사의 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산복도로 골목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사회적 상상력을 일상 속으로 끌어냄으로써 보다 존재감 있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나누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개월마다 시낭독대회를 개최, 시를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지역민들의 인문 정신을 함양하고, 비석문화마을의 역사성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개인의 존재감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 제1회 시낭독대회 : <당신이 봄꽃입니다>, 2019년 4월 4일
- 제2회 시낭독대회 :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린다>, 2019년 6월 28일
- 제3회 시낭독대회 : <사물의 세계, 마음의 세계>, 2019년 8월 16일
- 제4회 시낭독대회 : <가슴 안의 열매들, 가슴 밖의 열매들>, 2019년 10월 4일
- 제5회 시낭독대회 : <당신만의 길, 당신만의 방>, 2019년 12월 6일
- 고명자 시인의 시강좌교실 <시의 마을을 꿈꾸며>
 - : 마을시집 발간예정(11월 30일 예정)
- 김수우 시인의 2019년도 발간작품집
 - : 편지집 『나를 지켜준 편지』 (1월)
 - 번역시집 『호세마르티 시선집』 (9월)
 - 『호세 마르티 평전』 (1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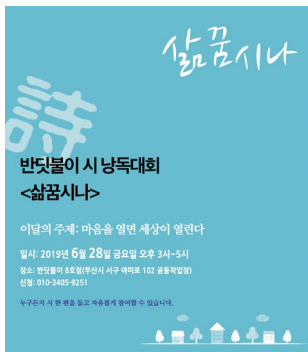
_ 제1회 삶꿈시나 시낭독회(4월 4일)

4월 4일, 마을공동체 아미맘스가 운영하는 기차집에서 연 삶꿈시나 시낭독회, 아미동 할머니 발레단의 공연이 압권이었다. 80대의 할머니들은 아직 추운데도 짧은 발레복으로 품위를 지켰다. 이분들은 이제 반딧불이 8호점을 통해 시의 세계와 차츰 가까워지는 중이다.



_ 제2회 삶꿈시나 시낭독회(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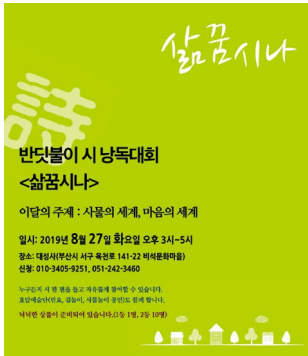
반딧불이 8호점에서 열린 6월 시낭송회. 마을주민들과 아미맘스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모여 시낭독대회를 열었다. 1등 상품은 선풍기였다.



고명자 시인이
열심히
사회를 보았다.

제3회 삶꿈시나 시낭독회(8월 27일)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있는 대성사에서 8월 시낭독대회를 가졌다. 대성사에서 민속공연 및 소리꾼 공연을 마련해 특별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다. 2개월만에 한 번씩 열리는 삶꿈시나 시낭독회는 이제 마을공동체의 소통과 교류에 작은 씨앗이 되고 있다.



제3회 삶꿈시나 시낭독회(8월 27일)

아미동 비석마을 경로당 <송이덕이방>에서 고명자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10월 삶꿈시나 시낭독대회. 음식을 준비하느라 할머니들이 더 바빠다. 열심히 돌아가며 시를 낭독하다가도 종종 노래가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 낭독대회는 1등은 1명이지만 2등은 10명이기 때문에 모두 마음 놓고 2등을 자신하는 중이다.





- + 점점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드나드는 게 익숙해지면서 옆집 분들과 친해졌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아는 얼굴들이 반가워졌다.
- 함께 시를 읽고, 관심을 가지면서 마을분 노인들의 삶에 더 큰 감명을 받는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표징을 그대로 몸과 마음에 새기고 계신 분들이었다.
- 아미동은 한국전쟁이 피란민들이 몰려오면서 천마산 자락으로 한 켠 한 켠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산복도로 골목이다. 가슴마다 고여있는 슬픔 얼룩진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인생 수업이 되었다.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문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 어쩌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장소성이 선명한 그곳에서 마주친 것들은 한 마디로 존재 그 자체들이었다. 천마산 아래에서 만나는 부산항 풍경 만큼이나 크고 따뜻한 마을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기도 했다.
- + 시를 통해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고맙다. 슬픔도 아름답다. 고통도 공부다. 그들의 선한 눈빛과 언어에는 세상과 사물의 목소리를 담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산복도로의 아침,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피난 수도 부산, 골목에서 만난 생명체 등... 시는 시집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함께 시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으로 다가온 것은 '내가 살 부비고 살아온 것이 다 시다. 내 살아온 주름들을 들여다보고 글로 옮겨 적은 것이 시다'라는 것이다. 시 읽기를 통해 나와 이웃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웃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공동체의식을 다시 한 번 배운다.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북구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예술가 등이 함께 의기투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꾸미었다.

봉사가 아닌 모두가 즐거운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공통관심사인 목공분야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생활 속 예술을 찾아가는 활동이며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의미 있고 다양한 공동체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에 있다.

문화예술분야

목공창작, 유목&강가 쓰레기 업사이클링, 문화기획,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 낙동강을 기반으로 생명과 자원을 생각하는 유목체험 활동
 - 낙동강 환경정비와 함께 채집한 유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창작프로그램 진행
- 유목창작 작품 전시(북구 어촌민속관, 반딧불이 공간)
 - 반딧불이공간에서 목공프로그램 진행
- 할머니 평상 프로젝트 1~4호 평상 제작 후 기증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평상제작 프로젝트 진행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집수리사업, 스토리길 조성 등
 - 마을 우편함 제작 및 기증
- 북구 구포나루축제 참가, 낙동강을 주제로 예술창작활동

낙동강 보물찾기 활동

우리의 젓줄인 낙동강의 숨은 모습들을 찾아가 생명의 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정비활동과 함께 채집한 유목과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는 예술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거, 강가에 떠다니는 유목 맞아? 보물 건졌다” 한 아이가 그렇게 외친다. 아이들은 신나고 어른들은 쓰레기에 순간 눈살 찌푸리기도 하지만 이내 창작활동에 아이와 어른 모두 그 매력에 빠져들며 자신만의 예술활동에 열중이다.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손 가고, 마음 끌리는 대로. 아이가 주워온 끈을 버린 끈인 줄 알고 현수막 묶는데 사용한 어른들. 새 끈을 주었으나 그 끈이 아니라고 하루종일 눈물 흘리던 아이. 사물을 소중하게 보는 눈을 아이에게 새삼 배웠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선물이 되어 오다니. 우리가 했던 행동을 한번 더 돌아보아야겠다.



대안학교 아빠들과 벤치&평상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그대들은 누구? 북구 화명동 소재 대안 학교 부모들이 모여 목공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솜씨로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다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의자 겸 평상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목공품은 따르는 벤치이지만 함께 모이면 평상이 되는, 개별적인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뜻깊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다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할 수 있는 다용도 벤치 겸 평상을 만들면서 부모들은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이 평상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꿈을 꿀 것이기 때문이다. 서툰 솜씨이지만 못질 하나, 사포질에 부모들의 땀방울이 맺힌 벤치 겸 평상은 점점 그 모습을 갖추가기 시작한다. 그대들은 이 시대의 진정 멋진 부모임을 인정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전시회

낙동강 보물찾기 후 펼쳤던 예술창작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작품들은 어촌민속관에서 전시된 후 반딧불이 공간에서도 한 달간 전시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를 방문했던 주민들의 한결같은 반응. “이거 너무 멋지다”, “나도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낙동강에서 채집된 유목과 쓰레기에서 재탄생된 작품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개인의 열정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한 나뭇가지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된 작품을 바라볼 때의 뿌듯함과 신비로움은 우리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

“아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구나.” 아이들이 웃는다. 그 아이를 보는 우리 어른들은 무언지 모르지만 따뜻함이 전해오는 순간이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배움을 깨닫는다. 드디어 전시회를 열었다. 어촌민속관에서 한 달간, 반딧불이 공간에서 한 달간. 복구 주민들이 창작하고 감상하는 즐거운 예술 활동이었다.



_ 감동마을영화제(추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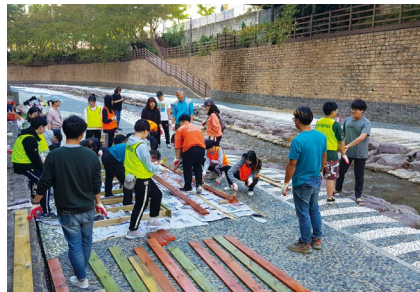
낮에는 주차장이지만 저녁에는 비어지는 마을의 유휴 공간이자 동물권을 침해하는 구포개시장의 딱 중심지. 그곳에서 최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감동재협동조합이 먼저 일을 벌였다. 금요일 저녁시간 가족이, 마을주민들이 함께 라이브공연과 청소년들의 댄스도 즐겼다. 2부에서는 입 안 가득 추억의 먹거리(옥수수, 식혜, 떡)를 먹으면서 옛 영화(E.T)를 보며 지난 추억을 떠올리려 본다. 30여년 전 대부분의 참가 주민들이 초등학교(그때는 국민 학교)였을 때 나왔던 영화다. 지금의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밤이 꽤 깊어감에도 공연과 영화의 여흥이 남아 마을 주민들은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밤을 새워도 좋은 것 같았기에... 이것이 바로 ‘소확행’ 아닐까?

_ 만덕천 환경정비활동 & 평상 제작 기증

만덕 마을공동체인 부산생협, 만덕N공동체, 지역 청소년들이 토요일 아침 만덕천을 깨끗이 청소하고 만덕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평상을 함께 만들었다. 각자 좋아하는 색을 골라 페인트칠하고 처음 접해보는 공구로 나사를 박으며 만덕의 마을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평상을 제작하는데 집중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성되기까지 모두 참여한 우리는 생각해 본다. 공동체에서 평상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많은 주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곳으로 사랑받았으면 한다. 여러 차례 평상을 제작하고 기부하지만 모든 평상을 그 자리에 보낼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꼭 시집 보내는 부모마냥 아쉬우면서도 그 곳에서 사람들에게 귀한 쉼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다. 한 여대생을 보았다. 처음이라면서도 드릴을 유난히 잘 다루던 여학생은 그날 공대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학생은 미래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감동재협동조합

* 목공은 제작활동이라는 내게, ‘그렇지 않아. 목공은 다양한 재료가 만나면 예술 활동이 될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낙동강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그냥 낙동강 청소에 머물지 않고 낙동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낙동강보물찾기 프로그램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 낙동강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위한 생명임을 깨닫게 해 준다. 둘째, 이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활동으로 빚어진 결과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셋째, 예술활동의 소재와 재료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즉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이다.

넷째, 낙동강보물찾기를 통해 만났던 마을주민, 북구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는 향후 우리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함께 해서 즐겁고 기뻐다.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 모두와 함께!

참여 시민 소감

북구 주민 **쁘띠 김현주** 각자의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살고 자신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조합. ‘강가에 버려진 유목과 쓰레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발한 구상에서 시작된 다양한 창작활동과 주민프로그램들.

어르신들에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평상 기증 프로젝트, 또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만들어 눈,비가 와도 불편물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는 작은 배려. 그리고 어촌 박물관에서의 유목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을 어귀에서 상영되었던 추억의 영화 <E.T> 그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먹거리는 우리 기성인들에게 추억을 곱씹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전통 음식을 맛 볼 기회를 줬다. 또한 음악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청소년 댄스동아리의 춤사위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감동재’, 그냥 나만의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감동은 말 그대로 感動이고 ‘재’는 있다 (在)라는 한자의 뜻으로 <감동이 있다> 그런 것 아닐까?

9호점

Chapter 2

반딧불이 발차취



9호점

감동재협동조합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10호점

프로젝트 팀
팬시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Project team Fancy는
지역 리서치를 기반으로 전시기획 및
진행, 콘텐츠 연구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시각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주제형 도시 리서치

: 구포 지역 조사와 함께 예술가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투어형 프로그램

도시 리서치 파생 프로그램 1

: 이미지 드로잉 / 외부 예술가와 함께 하는
쉽게 접근하는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시민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활동
스토리



◀ 주변 지역을 리서치 하며,
스쳐지나가는 풍경 속 식물을 찾고,
드로잉을 하는 <숨바꼭질 정원>의
리서치 모습

지역의 길, 벽 등에 자라난 식물을 찾아 가는 ▶
<숨바꼭질 정원>



◀ 영화를 보고, 나이트 아트를 배우는 시간.
영화속 인물이 표현해가는 과정을 함께 감상.

쉽지만은 않은 표현의 길. ▶
그래도 간식과 함께 즐겁게!



◀ 6월 프로그램
<우리의 계절을 함께 그려요>



지난 5월 진행된 <숨바꼭질 정원>이
또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숨바꼭질 정원II>가 진행 되고 있는
모습. 늦은 저녁시간에 진행되어
리서치는 제외하고, 바뀐 재료를 이용한
표현으로 더욱 즐거워 하는 참여자들.

오늘은 드리핑 아트를
체험 하는 날!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몸으로 배우는
액션 페인팅~



다양한 형태로 번져가는
물감을 감상해요~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프로젝트 팀 팬시

+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시민과 함께 공유 할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홍보와 참여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반딧불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 시민 소감

“프로그램과정과 방법에서 다양한 형식의 예술을 체험할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다음에 또 계속되었으면 한다.”

Chapter 2

반딧불이 발자취



10호점

프로젝트 팀
팬시



참여 예술인(단체) 소개

저희 만근 스튜디오는 대중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오페라를
현대인이 이해하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각색하여 공연하는 오페라 공연팀입니다.
오페라 뿐 아니라 뮤지컬, 가요 등 여러 음악 장르를
구분 없이 기획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음악(오페라, 뮤지컬, 가요)

예술인(단체) 활동 소개

저희 11호점 만근은 오페라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문화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제일 기본이 되는 성악을 알려주고자 노래교실을 개최하여
발성의 기본에 대해 강의하고 성악으로 뮤지컬, 가요 등과 같은
여러 장르의 음악도 토크쇼의 방식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입주 후 첫 공연.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사랑의 묘약' 첫 손님이셨던
이분들은 방명록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약장수 둘까마라의 노래
'Udite udite orustici' (여러분 들어봐요!)
몸까지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에 웃기셨는지 입까지
틀어막고 웃으시는 관객과 잇몸만개해서 웃으시는
관객분들.



첫 토크쇼 이태리 가곡.umba 의자 구매 후
배송이 늦어져서 임시의자 사용.
임벌려 노래하는 모습이 벨루가 같았다는
한 관객분의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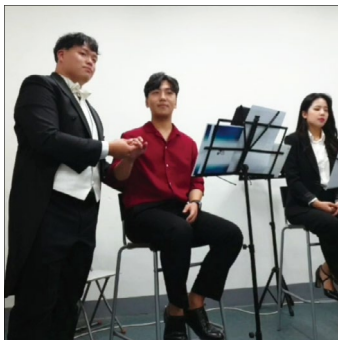
초대가수 바리톤 장문용 선생님과 앵콜곡 열창
도중 애드리브로 높은 음 지속해서 끄는 부분 같이
끌기로 하고 안 부르셔서 혼자 부르다가 힘들어서
선생님 밀치는 순간. 순간 포착!



두 번째 토크쇼.초대가수 메조 소프라노 서혜원
선생님과 공연 끝나고 한 컷. 사적인 질문 많이
했다고 혼났습니다.



함께 하는 연주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관객들의 사랑 또한 커져가는 만근스튜디오!



3번째 크로스오버 토크쇼 앵콜곡 시작 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 특성에 맞게
초대가수 바리톤 이승훈 선생님과 눈빛교환 중
손을 맞잡다가 순간포착! 참고로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참여 시민 소감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쌀쌀해져 가는 가을 날씨. 모든 것이 재미없고 감성만 숫구치는 노잼시기.
이럴 땐 만근스튜디오에서 실시하는 공연을 보러 가야 한다. 혹시라도 늦을까 하는 마음에 일찍 들어가 자릴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각을 했지만 관객과 소통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앉으라고 말씀
하시는 진행자. 늦어서 정신없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공연에 빠져들고 약 2시간이 되는 공연 속에서 힐링을
했다. 만근스튜디오는 북구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하다.

반딧불이 사업 참여 소감

반주자 최현진

* 예술인의 연습공간과 공연공간을 지원해주고 예술인은 그 지역에서 공연과 예술적인 공유를 하는 것이
개개인의 음악적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예술인으로써 뜻깊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할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저희 팀의 음악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시간이어서 공연할 때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예술적인 교류를 많이 해서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들을 함께 체험하고 싶습니다.

반딧불이
발치취

11호점

만근스튜디오

* 반딧불이 사업으로 진행된 연주회에 예술인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주회는 전문예술인들만의 영역이라는 전형적인 틀에서 탈피하고, 직접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예술 참여의 장에서 예술로 소통함으로 지역 시민문화예술 활성화의 증진을 위해 힘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이 전문예술인만을 위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비전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예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프라노 김민정

*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허물 수 있다는 목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관객과 소통하며 연주할 수 있다는 점과 클래식을 쉽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부담없이 편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리톤 이승훈

*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것은 한 걸음씩 나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노래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관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반딧불이에 참여하면서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연주였습니다.

만근대표 강태영

* 많은 대중들이 성악과 오페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그들에게 성악과 오페라도 대중들이 즐기고 문화적인 가치도 함양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민하던 중 반딧불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공연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연을 할 때 흥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관객들이 좋아해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함께 박수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런 공연은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한 관객분의 칭찬에 구포동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더욱 더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많이 기획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연에 웃음지어 주실 관객 분들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좋은 공연 계속 만들겠습니다.

*빈집활용

반딧불이 사업

도시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빈집을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범죄 유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술인과 일반인이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딧불이의 새로운 입주예술가가 되어주세요!

입주신청안내

지원자격 부산소재 단체 또는 3인이상 개인

지원사항 1. 창작활동 공간제공
2. 시민향유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공지

반딧불이의 기부자(제공자)가 되어주세요!

공간신청안내

공간조건 66.11㎡(20평) 전후인 유휴공간

기부자(제공자) 혜택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2. 공간 개보수

신청기간 연중상시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문의 051-745-7216

 부산광역시 **반딧불이** 부산문화재단

Chapter 3

반딧불이
홍보관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 확보하여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한 후
예술가가 상주하여 창작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해 급증하는 빈집을 예술인들의
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경관 환경개선,
범죄유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술인과 일반인이
소통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딧불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입주작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결과자료집

(재)부산문화재단 발간번호

2019-029호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16 ~ 7218

F. 051-745-7708

E. bscfcenter@bscf.or.kr

발행인

강동수

편집기획

성유정, 이주영, 유반야

디자인 및 제작

하마맨션

(재)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5-7216 ~7218 F. 051-744-7708~9

E. bscfcenter@bscf.or.kr

